

제8회 부산연극제 대상 수상기념

 劇團 釜山 레퍼터리시스템 제66회 공연

제작/장 세 중 기획/박 기 찬

七山里

작/이 강 백 연출/허 영 길

'90.5.11▶13 [5시·7시30분]

시민회관 소강당

- 주최 / 부산직할시
- 주관 / 한국연극협회 부산지부 · 극단 부산 레퍼터리시스템
- 후원 / 문예진흥원 ·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 예총 부산지회



양 왕 용

- 부산극작가 협회부회장
- 부산대 교수

분단의 아픔에 대한 연극적 해석

이강백의 『칠산리(七山里)』는 1989년 서울 연극제에서 희곡상을 받은 작품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객관적 우수성을 획득한 셈이다.

이 작품은 과거와 현재가 자주 교차되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장면 교차에 따른 관객의 명확한 이해가 요청되는 작품이다. 과거의 주인공은 어미이고 현재의 주인공은 자녀들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 같다. 아울러 이 작품은 서사극적인 요소를 약간 가지고 있다. 즉, 자녀들이 중간 중간에 코러스로 해설하는 것이다. 무대에서 연기를 하지 않는 등장인물들을 무대 옆에 자리를 마련하여 관객으로 참여시켜 이 작품 속의 이야기가 현실이 아닌 연극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요소들이다.

이러한 구성을 하게 된 까닭은 이 작품의 주제 때문이다. 즉, 주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라는 뜻으로 막이 처음부터 열려 있고, 배우를 관객으로 앉혀 둔 것이다.

칠산리 마을 산 속의 어미 무덤 이장 공고 소식을 듣고 온 7 자녀들과 면장의 대화에서 연극은 시작된다. 자녀들은 호적에 없다는 면장의 대사는 의문을 던져주며, 자동차길 공사로 인해 산 속 무덤이 이장해야 된다는 것. 역시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감추어진 의도는 다음과 같다. 주민들은 칠산리가 난리 때 빨갱이 소굴이라고 아직까지 인식되고 있어 개발이 지연되는데, 그 원인은 무덤의 주인공인 어미와 그 자녀들에게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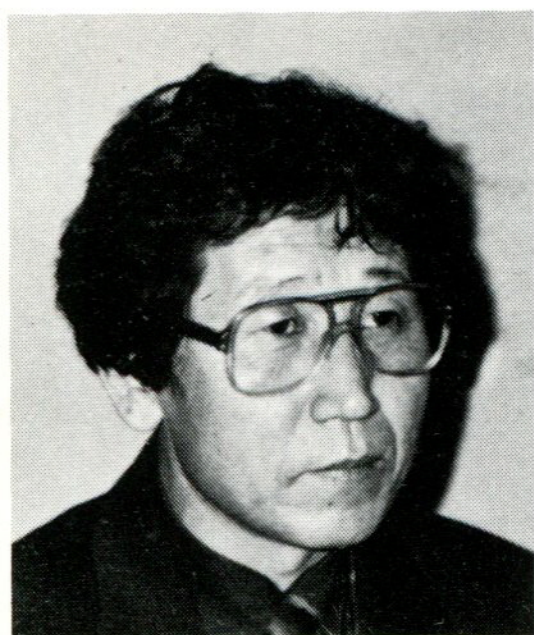
장면이 전개되어 가는 동안 12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호적에 없는 까닭이 밝혀진다. 그 자녀들은 어미의 친자녀들이 아니고, 칠산리 산 속의 빨치산의 자녀들인데, 군에 입대하여 전사하게 되는 남편을 둔 어미가 맡아 길렀던 것이다. 어미는 결국 12자녀들을 먹이기 위해 굶어 죽게 되고 그 뒤 12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그 가운데 막내는 지금 경찰에 쫓기고 있다.

면사무소가 문단을 시간인 오후 5시 30분까지 7 자녀들은 나머지 5명의 자녀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다가 결국 막내가 칠산리로 직행하여 마을 사람들과 대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7 자녀들은 많은 논란을 거쳐 장남이 제의한 대로 어미를 화장하여 각각 나누어 갖자는 데에 수긍하고, 눈내리는 가운데 칠산리 무덤으로 떠나면서 연극은 끝난다.

관객들은 이렇게 연극이 전개되는 동안 분단으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칠산리 주민처럼 아직까지 「빨갱이」라면 무조건 분노하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머물 것인가?

어미처럼 휴머니즘 혹은 모성애로 용서하고 감쌀 것인가? 또는 자식들 처럼 고통의 아픔을 나누어 가지면서 지금까지 분단 때문에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여야 할 것인가?

이상과 같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현안문제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칠산리 마을의 이야기를 통하여 형상화시킨 점에서 이 작품의 우수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허영길

가슴속에 사무쳐있는 상처...

연극이라는 매체는 꼭 문화적인 행사일 수는 없다.

연극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즉, 피차간의 인생이 서로 꼬이고 꼬여서 감동을 느낄 때 비로소 연극 행위는 그 정당성을 발휘할 수 있는게 아닐까!

칠산리는 이데올로기의 좌우 대립으로 우리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상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해소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하겠다. 우리세대가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간접 경험한 6. 25동란은 한국의 근대사에 있어 여러가지 사건중 가장 극적인 역사적 현실로 인식된다고 하겠다. 그중에서도 특히 빨치산은 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고,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

칠산리는 좌우 이데올로기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어머니와 자식들 사이에서 사상적 갈등은 배제되어 있고 나아가 사건 자체도 과거의 사건으로 회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빨치산의 아이들로 상징되고 있는 비극의 해소를 위한 대안이 정치적 사회적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윤리적인 것이다. 그리고 현재 다양한 이론이 제기되고 있는 통일문제를 어미와 같은 마음으로 통일을 갈구하는 우리들의 소망을 표현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그 특유의 서정적인 분위기로 분단의 역사를 다시한번 돌아보려고 한다.

끝으로 연극제 기간동안 많은 수고를 하신 부산시 관계자와 연극협회 김문홍 지부장과 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칠산리를 대상으로 선정하여주신 심사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기획자의 말



박기찬

칠산리를 기획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보릿고개였다. 동족상잔의 저 지구상의 비극이 가져다 준 6. 25의 참상을 먼저 떠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릿고개라는 과거의 念想들이 겹치어 아련하게 번져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송진내음 길게 번지는 산에서, 비단땀 옆구리같은 마른 황토를 밟으며, 그 들판에서 먼 지평선을 바라보는 것은 배고픔보다 향수에 가까운 미래였다. 그렇다. 그 향수에 가까운 미래는 현실화 되었으며, 현실화된 하나의 구심점은 연극 '칠산리'라는 현상으로 모아졌다.

보릿고개의 아련한 業을 짊어지고 수십년의 강산을 스쳐온 지금, 내가 내려놓아야 할 현장인 '칠산리'.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영원한 문제를 풀게해 준 '칠산리'와의 만남에서, 그러한 인연들과 더불어 울고 웃으면서 가야할 좋은 인연들에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기획의 빵 한조각씩을 나누어 주고 싶다.

캐스트



어미 / 이 동 희



간난이 / 백 정 임



할미 / 정 행 심



이장, 형사 / 박 상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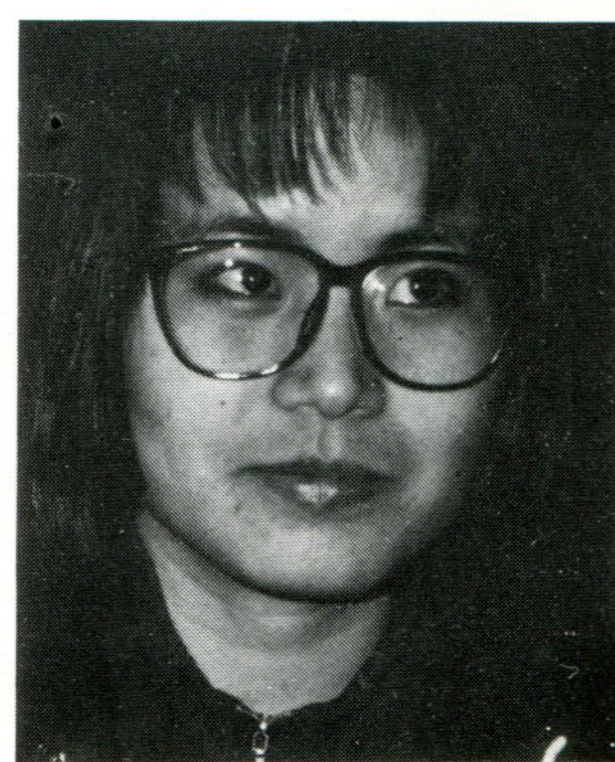
상사, 형사 / 이 정 허



다복네 / 김 은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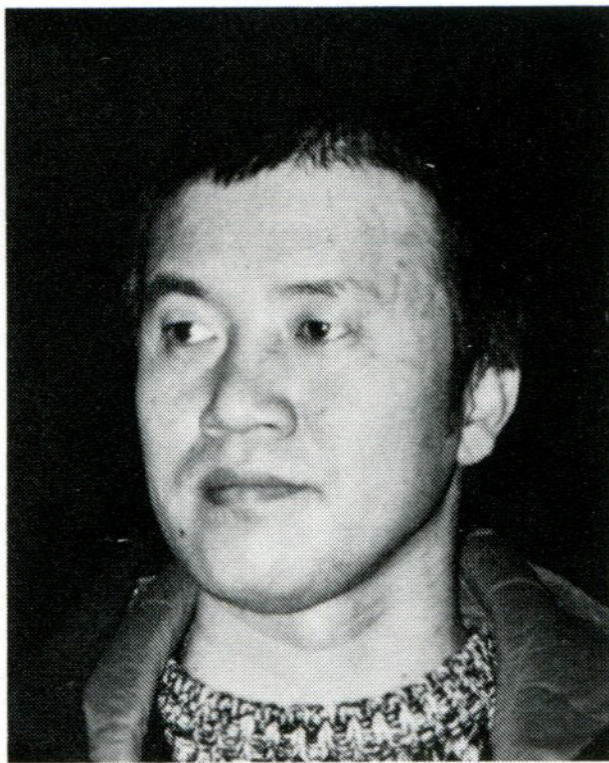
움집네 / 김 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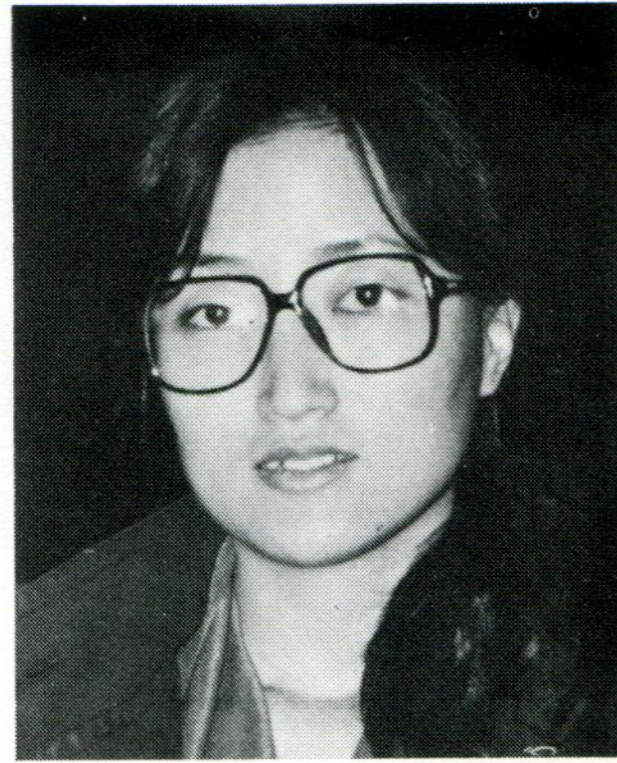
뒷골네 / 박 선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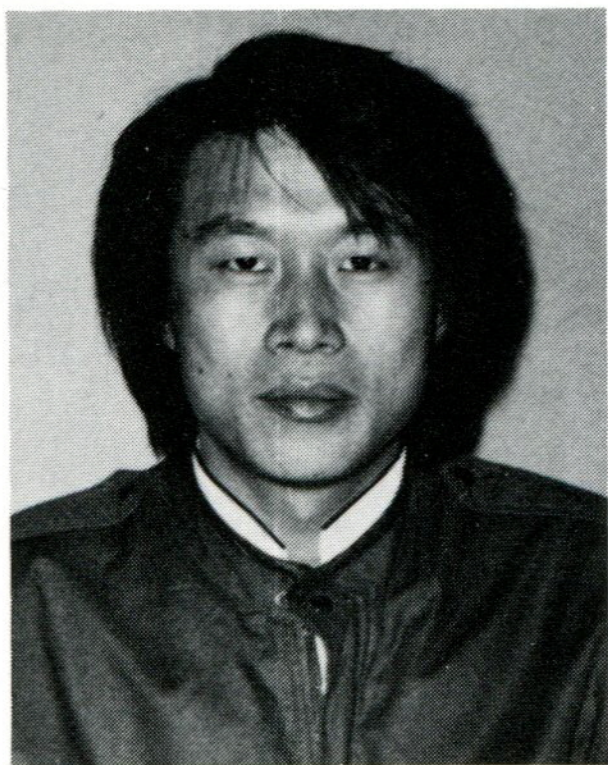
면장 / 김 상 훈



장남 / 이 상 복



장녀 / 박 혜 인



차남 / 유 상 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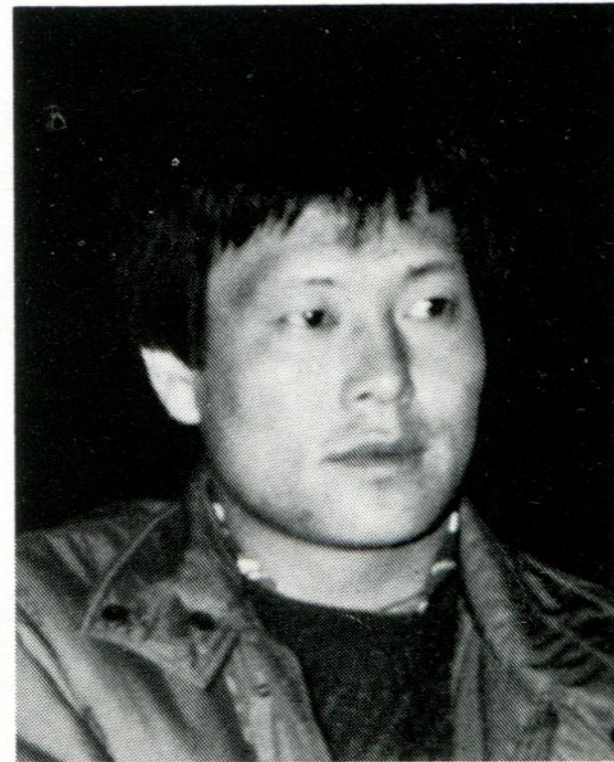
차녀 / 강 혜 경



삼남 / 심 창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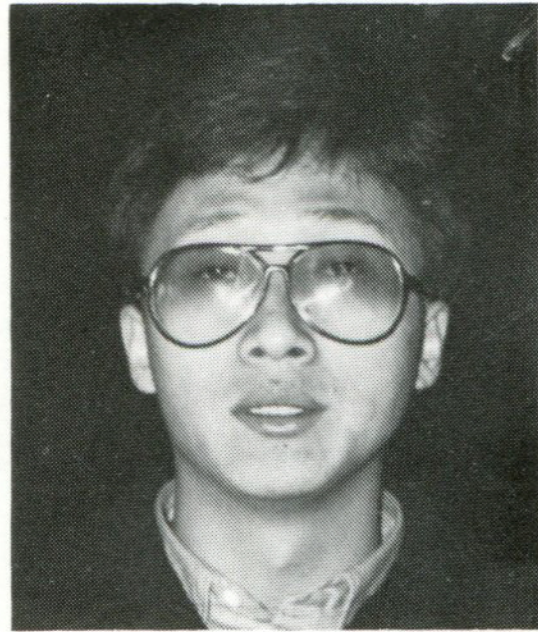
삼녀 / 권 혜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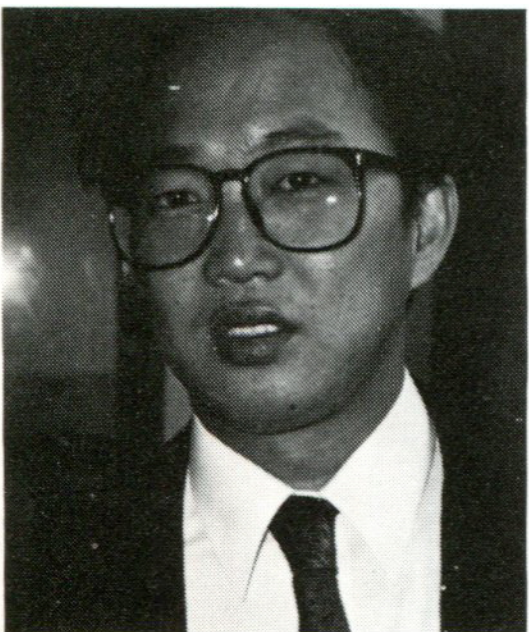
사남 / 정 순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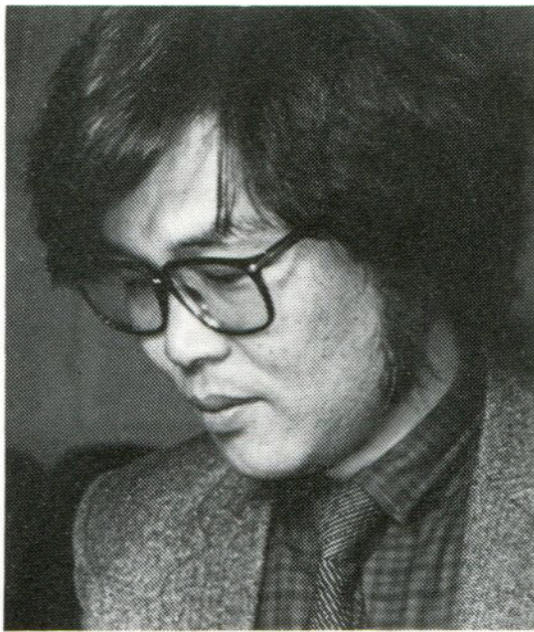
무대감독 / 이 종 근



미술 / 이 동 국



조명 / 김 영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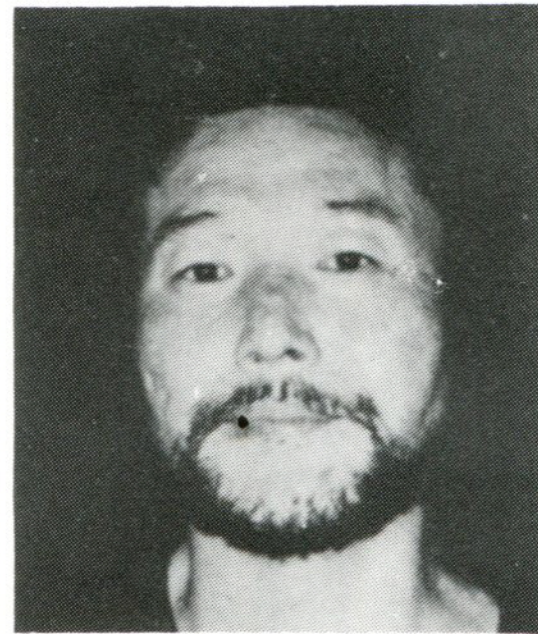
작곡 / 박 철 홍



의상 / 민 순 라



음향 / 홍 성 현



기획보 / 이 기 원

사단법인 한국맹인복지협회 부산지회

회장 정 화 원

☎ 462 - 3292

록 화 회

회장 성 백 천
총무 김 명 재

☎ 464 - 1766